

은행, 코로나19 이후 Next Normal에 대비 필요

이 령 화 연구원(ryoung.h@hanafn.com)

글로벌 자문기관 deVere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산업 변화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McKinsey도 이 사태가 비즈니스 모델을 궁극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객 수요 변화로 전통적 채널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은행들은 API 기반 BaaS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회사와 연계하는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보유중인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Next Normal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자문기관 deVere,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산업 변화가 영구적일 가능성 언급^[1]

- deVere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일·금융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시적이 아닌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 이는 WHO의 비접촉 결제 촉구, 러시아의 ATM 사용 제한 권고 등 비대면·비접촉 생활이 확대되면서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기인
- 특히 일부 핀테크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금융기관에 무료 혹은 할인 가격으로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번 사태를 사업 확대의 기회로 활용
 - 美 기업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 업체인 '401GO'는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7Chord'는 AI기반 회사채 관련 앱 BondDroid를 3개월간 무료 제공

■ 은행의 디지털 전환 촉진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으로 이어질 전망^[2]

- McKinsey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니즈 등 '수요 변화 정도'와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변화 정도'별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4가지를 제시^[3]
 - 4가지 시나리오는 ①신규 비즈니스 구축, ②-1비즈니스 모델 전환, ②-2회사/산업 재구축, ③현 비즈니스 유지 및 보완으로 구성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급증은 이미 진행 중인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 Next Normal을 야기할 전망
 - 은행의 강점인 지점 네트워크는 방문 고객감소 등으로 채널로서의 역할이 변화

[1] "Coronavirus Drives 72% Rise In Use Of Fintech Apps", Forbes, 2020.3


[2] "How Will The Coronavirus Impact The Banking Ecosystem?", Financial Brand, 2020.3

[3] "Getting ahead of the next stage of the coronavirus crisis", Mckinsey, 2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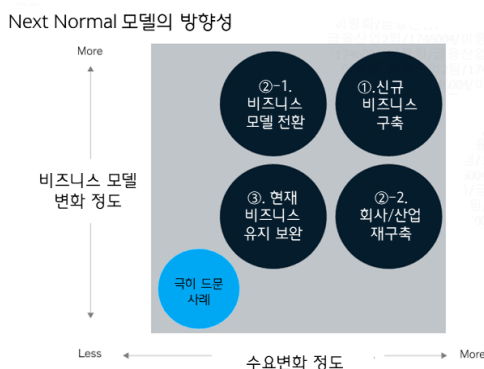
■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은행의 대응 모델로 API 기반 플랫폼(BaaS)이 부각

- 최근 API를 기반으로 은행 시스템과 제3자의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에게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BaaS(Banking as a Service)가 주목 받고 있음⁴⁾
 - 은행 서비스를 API를 활용해 은행 라이선스가 없는 제3자와 연결함으로써 고객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수 있어 즉시성과 낮은 비용이라는 장점을 보유
- 현재 API 기반 BaaS 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체로는 Solaris Bank, Bankable 등이 있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B2C로는 Starling, Fidor, BBVA 등이 있음
- 특히 ICICI 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500여개 서비스를 탑재한 소매업자, 핀테크 회사, 전자상거래 회사, 기업 대상 API 기반 플랫폼 ICICI Stack을 론칭⁵⁾
 - 고객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모기지 대출, 보험 등에 관련된 업무 수행이 가능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

■ 향후 국내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통해 Next Normal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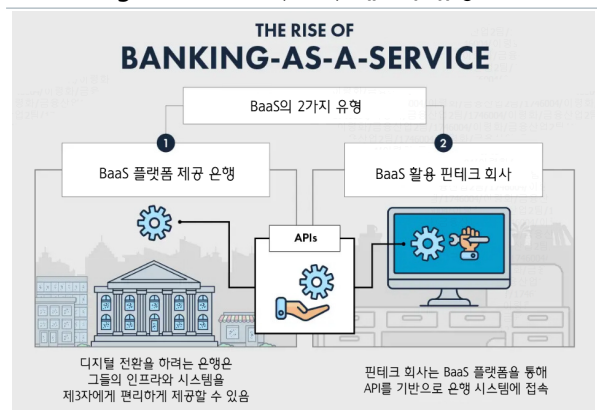
- 사회적으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즉각적이면서도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빠른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
- 국내 은행의 경우 하나은행('19.11), 신한은행('19.4월 리뉴얼), 우리은행 위비뱅크('19.6)에서 오픈 API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
- 향후 국내도 현재 보유한 오픈 플랫폼과 AP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Next Normal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변화 시나리오



자료 : McKinsey

■ Banking as a Service(BaaS) 개요와 유형



자료 : Business Insider

⁴⁾ BaaS는 유럽의 PSD2 도입 등을 계기로 소개된 이후 일부 은행 중심으로만 운영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주목 받음. BaaS 유형으로는 B2B API 기반 pure BaaS와 B2C 기반 BaaS(오픈 플랫폼)이 포함

⁵⁾ "ICICI Bank took huge step in direction of Coronavirus, launched new service", Sahiwal.tv, 2020.3